

# 전남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온힘

### 진도서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 고교생·학교밖 청소년 40명 참여 3일간 북콘서트·미래차 제작체험

전남도가 최근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3일간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문학 인재 양성을 위해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을 운영했다. <사진> 인재학당은 평소 교육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제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지식을 융합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한 특별 인문학 캠프다.

전남지역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 국내 석학 특강 및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됐다.

인문학 강의는 ▲이창현 작가 초청 북콘서트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그림으로 만나는 남도 문화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 ▲미래 자동차 제작 체험 ▲명랑 운동회 등 인문학을 과학과 예체능 분야와 접목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 석학과의 만남에서는 순천대 교수인 객재구 시인이 '우리 곁을 스쳐가는 따뜻한 1초들'이라는



주제 강연하고, 해남 우수영 등 역사 탐방을 통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과정도 진행됐다.

인재학당에 참가한 목포해인여고 이해은 학생은 "북콘서트 도서를 읽어보고 독후감을 직접 쓰고 나서 실제 책을 쓴 작가와 만나 토론하는 시간이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을 통해 인문학적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전남 청소년에게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 이들이 인문학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인재 육성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초석을 다지는 새싹인재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 전남의 미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청년 문화복지카드

### 대상자 2세 하향 19세부터 적용

전남도가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와 문화생활 향유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올해부터 2세 하향해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5~2004년도 출생자) 청년이다.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확대도 지난해보다 약 3만여 명이 더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시지역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지역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 문화복지 카드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지원금은 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활동 등 전남도 내에서 문화복지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가맹점 2만여 개를 확보하고 7만8818명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해 청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 호평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올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연령을 확대했다"며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계묘년 책 속의 토끼 살펴보세요

### 전남도립도서관 '책 속 토끼전' 아트프린팅·인형만들기 체험도

전남도립도서관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지혜로움과 총명함의 상징인 토끼와 관련해 책 속에서 다양한 토끼의 모습을 살펴보는 '2023년 책 속 토끼전'을 개최한다.

<사진> '2023년 책 속 토끼전'은 토끼가 주인공이거나 주제인 그림책과 옛이야기, 동화, 문학작품 등 총 54권을 전시하고, 책 소개와 함께 풍성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각을 자극하는 유쾌한 그림책 '슈퍼 토끼' 아트프린팅과 '토끼 포토존', 새해 소원과 올해 읽고 싶은 책을 적어보는 '소원토끼 꾸미기'도 함께 진행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슈퍼 토끼' 주인공을 봉제 인형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토끼인형 만들기'도 운영한다.

박용화 전남도립도서관장은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책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도민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준비했다"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지역 국가산림문화자산 17개소 지정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전남도가 생태적·경관적·학술적 보전 가치가 높은 유·무형 산림자산을 지정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전남지역 17개소가 지정됐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이 매년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전남에는 마을숲·문화림 등 숲 9개소, 샘·동굴 등 자연물 5개소, 근대유산 2개소, 유적지 1개소 등이 있다.

이는 전국 87개소 중 약 2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각 산림문화자산 대상지에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전남도는 국가산림문화자산과 주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사진)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메타프로방스 식당, 카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매년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및 보존을 기념하는 '담양가로수사랑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새로운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치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기존 산림문화자산을 주기적 실태 점검을 통해 보존·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가축분뇨 자원화·악취저감 351억 투입

### 올 국비 6개·도비 6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 등 적정 처리 확대를 위해 올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351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친화축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 해 총 사업비는 12개 사업 351억원으로, 국비 6개 사업 197억원과 도비 6개 사업 154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화순, 해남, 영암, 영광군에 94억 원을 지원한다. 퇴비사,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가스·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담양, 화순, 2개소가 추진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2026년부터 연간 5GW 전기 생산과 1만톤의 온실

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가축분뇨의 안정적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인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비 30억원을 무안·진도군에 지원한다.

이밖에 가축분뇨의 발효효율을 높이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소·돼지·닭·오리농가에 악취저감제 구입비 79억원을 지원하며, 악취저감제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해 영광군에 10억원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개방형 퇴비사 밀폐 및 악취저감용 기계·장비 공급에 15억원,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설치에 20억원, 축산농가 퇴비 공급에 25억원을 투입해 축산 악취 개선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 악취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환경친화축산 선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학숙, 2023년 신규 입사생 160명 모집

### 2월 18일까지 신청

전남도립 전남학숙이 광주시 및 인접 시·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대학생의 면학 지원을 위한 2023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60명으로 남자 104명, 여자 56명이다. 신청은 2월 18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않은 졸업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멀티미디어실,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견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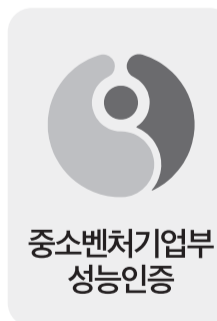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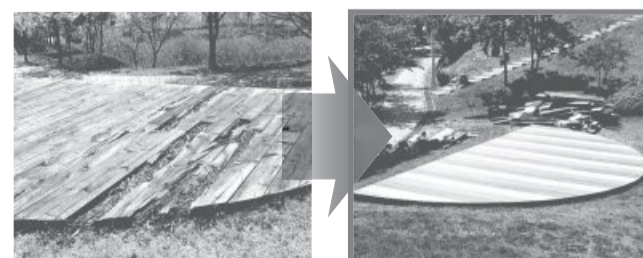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